

북원당(北圓堂)

목조미륵여래(산스크리트어: 마이트레야)

국보

이 미륵여래상은 북원당의 본존으로, 유명한 불상제작자인 운케이(1150~1223년)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.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미륵은 석가모니의 후계자로서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나타나 다음 여래가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입니다. 이 상에서는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부처로 표현되어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

몸통 안에 담긴 문서에는 1212년에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. 아울러 겐케이, 조케이, 운가, 운조, 운카쿠, 단케이, 고벤, 고운, 고쇼 등 게이파(慶派)라 불리는 불상제작자 집단에 속한 여러 불상제작자들의 이름이 상의 대좌 안쪽에 먹으로 쓰여 있습니다. 이를 종합하면 이 상은 게이파 불상제작자에 의해 조성되었고, 그 구상에서부터 제작을 지휘하며 전체를 총괄한 것은 게이파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불상제작자인 운케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이 상은 종종 운케이의 성숙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힙니다.